

## 4318번 버스를 타고 가는 곳

잠일초등학교 5학년 김선

아침 겸 점심을 먹고 텅굴텅굴하던 일요일 오후, 엄마와 나의 눈이 마주친다. “갈까?”하고 엄마가 말씀하시면, “가요!”라고 내가 대답한다. 집에서 입고 있던 옷차림 그대로 커다란 가방만 들고 우리는 4318번 버스를 타러 간다. 이 버스를 타고 가는 곳은 내가 태어나서 일곱 살이 될 때까지 살았던 바람드리 마을이다. 지금 사는 잠실에서 버스로 20분 정도 걸리는 풍납동의 순우리말 이름은 바람드리 마을이다. 한강변에 위치해서 바람이 부는 지형의 특성이 이름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풍납동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풍납토성이다. 야트막한 언덕으로 이루어진 토성은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한성백제시대의 왕성 터다.

마을은 토성 안에 다소곳이 들어 있는 모양이다. 개발하려고 땅을 파면 유물과 유적이 출토되기 때문에 법으로 개발을 제한했다. 개발을 제한했다고 어른들은 불평하지만, 그 마을에 사는 아이들은 즐겁다. 잔디로 덮인 토성과 울창한 나무가 신나는 놀이터가 되기 때문이다. 한강도 가까워서 조금만 걸어가면 한강 둔치가 나온다. 동네의 개발이 덜된 것처럼 한강 둔치의 풍경도 자연의 모습이다. 수영장이나 레스토랑 같은 깔끔한 시설 대신 풀밭과 갈대밭이 있고 운동 시설이 약간 있을 뿐이다.

잠실 지역의 아파트 단지와 롯데월드를 지난 버스는 서울아산병원을 거쳐 바람드리 마을로 들어간다. 엄마와 나는 예전에 살았던 시장 입구에서 내린다. 오전과 오후의 물건 가격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로 요술을 부리듯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깨비시장’이라고 이름 붙은 재래시장이 우리의 목적지다.

시장 입구에는 아빠의 단골집이었던 이발소와 옷 수선집이 있다. 내가 이발소에 들어가서 머리를 자를 동안 엄마는 수선할 옷이 있든 없든 수선집에 들러 수다를 떠신다. 마을을 떠난 지 5년이 되었는데도 마치 지금도 사는 사람처럼 행동하신다. 머리를 자르고 나면 이른 저녁을 먹을 행복할 시간이다. 시장에는 떡볶이와 튀김을 잘하는 분식집, 어묵을 파는 가게, 봉어빵과 호떡집, 양념이 기막힌 닭강정집, 쫄깃쫄깃한 칠팔면집, 왕만두집, 닭꼬치집 등 푸짐하고 맛있는 먹거리가 가득하다. 또 재미있는 간판을 가진 돼지고기 식당들도 많다.

“돼지가 고추장에 빠진 날, 많이 먹어도 돼지, 돈 내고 돈 먹기.”

이름이 재미있어서 음식 맛도 두 배다. 배를 채운 다음 코스는 토성길 산책이다. 차량의 통행을 막고 산책로를 만든 토성길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다. 나는 토성 바로 옆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날마다 토성에 가서 놀았다. 봄에는 민들레와 제비꽃에 앉은 나비를 잡던 곳, 여름이면 네 잎 클로버를 찾던 곳, 겨울에는 눈사람을 만들고 눈썰매를 타던 곳이다. 토성에서 노느라 내 다리에는 항상 어딘가에 멍이 들어 있고, 바지의 무릎과 엉덩이 부분에는 구멍이 뚫리기도 했다. 지금은 그때 같이 놀던 친구들은 없지만, 그곳에 가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도깨비시장에 있는 가게 대부분은 오래됐고 상인들이 바로 동네 주민들이다. 유난히 뚱뚱한 아줌마와 마른 아저씨가 하는 과일 가게는 시장의 명물이다. 내가 아기였을 때부터 예뻐해주신 그분들은 나를 볼 때마다 바나나, 자두, 귤, 사과, 꽃감 등 과일 한두 개를 내 손에 쥐여주신다. 물건이 정말 좋다고 하시면서 엄마는 가방에 과일을 가득 담으신다. 때로는 무거워서 고생하시면서도 가방 한가득 과일을 사신다. 내가 들고 간 배낭에는 주로 야채가 담긴다. 엄마는 도깨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야채 가격이 싸기 때문에 안 사고는 못 배긴다고 하신다.

“생선도 정말 좋은데 버스 타면 냄새나니까 살 수가 없네. 다음에는 자전거 타고 와서 사야지!”

생선까지 욕심을 내는 엄마는 나보다 바람드리 마을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다. 무거운 짐가방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는 집으로 가는 4318번 버스를 기다린다.

우리가 들어간 시장의 반대편 출입구에 있는 공원에는 바람드리 마을을 상징하는 색색의 바람개비 수백 개를 땅에 꽂아두거나 담벼락에 매달아두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모습이 꽃보다 예쁘다. 항상 바람이 부는 동네이므로 항상 바람개비가 돈다. 바람개비가 만들어내는 바람에는 풀 냄새, 꽃 냄새 그리고 사람 냄새가 난다.

내 고향인 바람드리 마을을 다녀오면 나는 요즘 어른들이 ‘힐링’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를 알 것 같다. 그곳에 가면 학원과 숙제에 바빴던 시간을 다 잊어버리고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넘치기 때문이다. 바람드리 마을이 지금의 정다운 모습을 오래도록 간직하기를, 그래서 엄마와 내가 계속 바람드리 마을에 갈 수 있기를 나는 바란다.

## 우리 고장은 경기도 남양주입니다!

심석초등학교 3학년 이다온

안녕하세요. 심석초등학교 3학년 국화반 이다온입니다.

저는 작년까지 서울에서 살다가 남양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온 이유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엄마가 암에 걸리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좋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서울에서 보기 힘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매일 보여주는 산과 나무들 꽃들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엄마는 아프신데도 매일 저를 학교에 등하교시켜주십니다. 그때마다 차 안에서 엄마는 “다온아, 하늘 좀 봐”, “다온아, 구름 좀 봐”, “다온아, 단풍 좀 봐”, “다온아~ 다온아~”

서울에서 살 때 우리 가족은 산책하러 나가면 자동차 매연 탓에 마스크를 꼭 쓰고 공원에 갔습니다. 공원에 가서도 어떨 때는 나쁜 아저씨들이 공원 안에서 담배를 피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아픈 엄마와 아빠와 저는 매연과 담배냄새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도망갔지만, 집에 와서도 문도 열지 못하고 공기청정기를 틀지 않으면 우리 가족 모두가 불안해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2년 동안 병원에 오래 있다가 집에 오시고, 또 병원에 오래 있다가 집에 오시고를 반복하다가 우리 가족은 남양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서울에서 살 때는 어디를 놀러 가려고 해도 주차장에서 시간을 다 보낸다며 아빠가 매번 화가 나셨는데 지금은 우리 아빠도 달라지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저와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호만천’에 매일 걸어서 산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마산과 백봉산을 앞뒤로 호평동 중심으로 지나가는 최고의 산책로인 호만천은 천마산에서 시작하는 사능천, 왕숙천을 지나 한강으로 흐르는 호평과 평내 주민들의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오남읍, 화도읍에 걸쳐 있는 높이 810.3m의 큰 산으로 690종의 식물이 자라며 1983년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입장료도 무료인 ‘천마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장에 이렇게 대단하고 멋진 산이 있다는 것도 굉장한 일인데 집안에서 365일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공짜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마, 아빠께 감사드릴 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 최고의 자랑 세 번째는 하수처리장을 예술품으로 만든 ‘피아노 폭포’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47-4에 자리 잡고 있고, 높이 61m, 길이 91.7m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끌어 올려 흘러내리게 합니다.

물의 소중함과 하수처리 과정 등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장이 있고 여러 가지 꽃과 나무를 볼 수 있는 등산길과 산책길이 있어 자연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놀 수 없지만 엄청난 크기의 무료 물놀이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에 살 때도 꼭 놀러 왔던 곳입니다.

이 밖에도 평내 약대울 물놀이터, 연꽃이 엄청 많은 북한강변 물의 정원, 삼패한강공원 등등 아름다운 우리 고장 자연을 심지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남양주가 저는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은 더 이상 나쁜 공기에 도망 다니지 않고 창문을 활짝 열어 놓습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또 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온아, 하늘 좀 봐.”

“다온아, 구름 좀 봐.”

“다온아, 나무 좀 봐.”

“다온아, 다온아.”

요즘에도 가끔 우리 엄마는 며칠씩 병원에서 자고 오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다는 행복. 어른들은 모든 것을 잃어야 소중함을 깨닫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기만 해도 가까운 세상에서 꼭 그래야만 할까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 지금이 저는 최고 행복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심석초등학교 3학년 국화반 최고의 이민재 담임선생님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고장은 경기도 남양주입니다.

“내일은 산이나 갈까?”

“좋아요!”

6월의 어느 화창한 주말 우리 가족은 일어나자마자 서울역으로 향했다. 열차표를 끊고, 곧바로 플랫폼으로 향했다. 그 러자 안내 방송이 울렸다.

“백두산행 열차를 타실 분은 14번 플랫폼으로 와주세요.”

우리는 표와 좌석을 스캔한 후 전자식 계단을 이용해 기차에 올랐다. 곧이어 열차는 스멀스멀 움직이기 시작했다. 열 차의 움직임은 매우 부드러웠다. 그 어떤 소리도 나지 않고, 조용하게 출발하는 이 ‘에어 열차’는 특별한 열차구조와 공기의 움직임이 만나 이루어진 친환경 열차였다. 전기나 연료 없이 기차 밑면의 특별한 구조로, 그것도 화학물질 없 이 공기가 밀어낸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했다. 그 힘도 센 터라 약 400km로 달릴 수가 있었다.

가족들과 맛난 수다를 떨다 보니, 어느 틈에 평양에 도착했다. 백두산 가는 길에 잠시 들를 수 있는 곳으로 역내에 있는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이곳에는 식당들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지만, 우리 가족은 가 장 맛있어 보이는 전통 냉면을 먹었다. 지난번에도 평양에 와서 먹었던 냉면이지만 다시 먹어도 언제나 맛있는 것 같 다.

그렇게 허기진 배를 채우고, 익숙한 거리를 뒤로 보내며 백두산에 도착했다. 이곳 또한 자주 오는 곳이지만, 매번 올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백두산은 따사한 날씨에 오는 게 제일인 것 같다. 드넓은 경치를 보니 속이 탁 트이는 기분은 역시 최고였다. 한쪽에는 울긋불긋한 꽃들이 수를 놓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몹시나 추워 보이는 푸르 림이 깃들어 있었다. 손끝은 가볍게 움길 때마다 축축해졌고 마음은 높고도 높은 하늘의 새털구름만큼 가벼워졌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기분이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런 경치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볍게 와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 나 좋은 일이며 행운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등산이 아닌 산책으로 둘러보면서 만끽할 수 있는 백두산의 품은 마냥 넉넉했다.

모든 구경을 마치고, 다시 열차에 올라타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았다. 좌석 스크린에는 에어 열차를 만드신 교수님의 인터뷰가 담겨 있었다.

“조금씩 환경에 관심을 두게 되니, 제가 원래 알고 있던 지식을 자연스럽게 사용한 기분이라까요. 하하, 관심이 제 인 생을 바꾸었네요.”

이렇게 사람들은 몇십 년 사이에 단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닌, 현명한 사람들이 되었다. 단순히 과학적 지식을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실생활에서 실천하게 되었다. 결국엔 많은 사람에게 상상을 현실로 경험하게 하는 특권을 주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뜻깊은 추억까지 선물할 수 있는 열차까지 만 들게 되었으니 ‘관심’의 힘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다.

이 힘은 단 한 가지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기술로 이어진 관심은 뿌리와 가지를 뺏어나가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 을 해왔고, 그 발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일상 자동차들도 이제는 공기로 움직이고, 온 세상은 다시 푸르름을 되찾 기 시작했고, 그만큼 우리나라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국토는 건강한 흙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매연이 없어졌다고, 공기만 깨끗해진 세상이 아니다. 특히 2020년과 2040년의 일상생활을 함께 하고 모두 겪었던 나 를 포함한 많은 사람은 달라진 세상의 차이를 몸소 느끼고 그 차이를 비교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훤히 보 일 것이다. 이 경험을 통해 환경을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이 생긴 듯하다. 공기뿐만 아니라 땅속까 지 생각하며 그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가슴 벅찬 이야기로 가슴이 설렌 틈에 서울 도착까지 5분밖에 남지 않았다. 누군가는 지금 마주한 이 상황들을 비현 실적으로 보았을 것이다. 상상 속의 일들로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린 당당히 역사 속 한 페이 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모두 자연과 과학이 갖는 조화로움과 위대함에 감사해 하며, 이 세상의 모든 오염이 점차 사라졌으면 하 는 마음으로 우리 국토를 지켜나가게 될 것이다. 지금은 2040년, 또다시 20년 후, 그 사람 다음 20년 후를 설계하면서 말이다.

서울역을 빠져나오면서 내 주머니에서 전자수첩을 꺼내 들었다. 내가 과학 연구원으로서 개발 중인 ‘재활용 쓰레기 물건 분해하기’ 실험 관련 아이디어 도안이 생각났다. 서울 밤하늘의 공기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함으로 온몸을 감싸 안았다.

“나도 곧 나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야!”

“엄마, 할머니 미용실에 안 가요?”

나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께서 운영하시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했다. 아주 오래된 건물 1층이고 빨강고 파란색 불이 돌아가는 등도 있다. 할머니는 이곳에서 40년 가까이 미용실을 하셨다. 머리를 예쁘게 할 동안 나는 할머니, 엄마와 함께 시장 구경을 한다.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하고 특별한 날에는 노래도 듣고 옛날 게임도 한다. 그런데 그날따라 손님들이 많아 나는 머리에 기구를 맡고 미용실에서 꼼짝도 못 하고 있었다. 그러고 있는데 할머니 손님 한 분이 엄마와 반갑게 인사를 했다. 알고 보니 얼마 전까지 시장에서 장사하셨는데 건강이 나빠지고 힘들어서 장사를 그만두셨고 오늘은 놀러 오셨다고 한다. 그러면서 엄마 어릴 때랑 내가 똑같다고 했다. 그제야 생각이 났다. 엄마는 어릴 때부터 줄곧 이곳에서 살았다. 바로 무학시장이다. 내가 엄마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왔던 곳이고 자주 왔던 곳인데 잠시 잊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살았던 엄마는 시장 지리도 잘 알고 있다. 골목골목 여러 갈래로 나뉘어 좁고 긴 길이 하나의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는데도 엄마는 잘 알고 있다. 지름길도 알고 있다. 아주 예전에 이곳은 엄마의 놀이터였다고 한다. 벽에 낙서도 하고 고무줄놀이에 술래잡기까지 하면서 컴컴해지는 줄도 모르고 놀았다고 한다. 지금까지도 친구들 집이며 자주 놀러 갔던 먼 친척 집까지 다 알고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시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별로 변한 것이 없다고 한다. 엄마가 유년 시절을 보낸 그 길을 지금은 나와 걷고 있다. 엄마와 할머니는 시장 안을 훤히 알고 있다. 만두와 순대를 파는 순대 골목, 좀 더 안으로 가면 시장에서 제일 오래된 닭집이 있다. 그리고 그 골목 끝자락에 떡집들이 쭉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몇 집만 남아있다. 꼭 장날이 아니어도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많다. 이제 무학시장은 할머니, 엄마, 나의 놀이터이다. 멀리 가지 않아도, 좀 더 멋진 곳에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충분히 멋진 추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특별한 곳이 되었다.

내가 미용실에서 심심해할 때면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미용실 근처에 있는 빵튀기 가게에 데려가 주신다. 까만색 긴 망사터널에 톱니바퀴 두 개가 돌아간다. 더 신기한 것은 자동으로 돌아간다. 한참을 지나면 할아버지의 “뽕이요”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나면서 흰 눈꽃이 막 날린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빵튀기가 터널 가득 쌓인다. 엄마의 어릴 때 간식이었다고 한다. 그 가게 옆으로 형형색색의 고운 이불 가게와 옷 가게가 있다. 엄마와 딸이 나란히 하는 가게다. 항상 나와 엄마를 예뻐해 주신다. 아마도 우리 집 이불은 다 그곳에서 산 것 같다. 3,500원 하는 국수 가게는 항상 사람들이 많다. 유난히도 사람들이 많은 국수 가게다. 양이 많아서 그런가. 맛도 있다.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나는 맛있는 국수를 먹고 과일·채소 가게를 간다. 그곳은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지나갈 때 인사를 잘한다고 방울토마토나 귤을 손에 꼭 잡아 주신다. 그러면 엄마는 항상 그랬듯이 과일을 한 봉지 사신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끌려 간 곳이 있다. 방앗간이다. 내가 좋아하는 참기름 냄새를 실컷 맡을 수 있는 곳이다. 물론 돈은 받지 않는다. 내가 어릴 때는 장난으로 사장님께서 돈을 달라고 해서 운 적도 있지만, 지금은 친해져서 어떤 장난에도 웃을 수 있다. 그 옆에는 몇 년 전에 새로 생긴 전 가게가 있다. 점점 장사가 잘 돼서 사장님이 매일 웃고 사신다. 그리고 건어물 가게다. 이곳에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 즉석구이 김이다. 참기름 향이 나는 김이 즉석에서 고소하게 구워져 나온다. 엄마와 할머니가 다니던, 살던 그곳에서 어느덧 나의 추억도 함께 쌓여 가고 있다. 골목에서 항상 아이들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 냄새도, 인정도 가득했던 곳이 점점 비워진다고 쓸쓸해 하신 할머니 뒷모습이 왠지 엄청 슬퍼졌다. 지금처럼 아파트가 없던 시절 서로가 다 알고 챙겨 주면서 지냈던 곳에 지금은 엄마가 외롭게 서 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가 되어도 시장이 없어지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 가족처럼 추억도 쌓고 우리 것도 지켜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할머니, 엄마, 나의 놀이터를 지켜 주고 싶다.

## 외갓집 가는 길

성룡초등학교 3학년 박정연

“정연아, 이번 명절에도 외할아버지 집에 가?” 나의 외갓집은 경상남도 창원이다.

내가 사는 대전에서 창원까지는 약 230km, 자동차로 약 3시간 정도 거리로 아주 멀다. 친구들이 그렇게 멀리까지 가는데 지겹지 않냐고 묻곤 한다. 물론 3시간 동안 자동차 안에서 가만히 앉아만 있는 건 정말 지루하고 따분하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다.

아빠가 운전하는 자동차 창문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우리나라의 산과 들, 강의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다. 자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 멋스러운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 가족을 맞아준다. 내가 태어난 봄은 겨울 동안 추위에 덜덜 떨고 있던 가지만 앙상한 나무들이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알록달록한 예쁜 새 옷을 갈아입는 계절이다.

새 움이 트는 나무들 사이로 나비들도 따뜻한 바람을 타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신나게 노는 듯하다. 산과 흙, 그리고 바람의 냄새는 항상 내 옆에 있는 엄마 냄새처럼 향긋하고 포근하다. 강물도 반짝반짝 은구슬처럼 빛이 난다. 잔잔한 물결을 보고 있으면 스르르 졸리기도 한다. 엄마가 태어나신 여름의 모습은 앞으로 보아도 초록, 옆으로 보아도 초록, 뒤로 보아도 초록, 나를 둘러싼 온 사방이 초록색으로 물들어 있다. 조금씩 다르게 칠해진 초록색 방에 들어온 듯하다. 밝은 초록, 진한 초록, 모두 아름다운 초록이다. 그래서일까? 엄마는 초록색이 제일 좋다고 하셨다. 햇볕이 짹짹 내리쬐는 한여름의 햇볕은 떼쟁이 동생에게 화가 난 내 마음처럼 열이 나는 것 같고,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화산처럼 뜨겁다. 하지만 초록색으로 뒤덮인 산과 나무들을 타고 온 초록 바람이 뜨거운 열을 시원하게 식혀준다. 동생이 태어난 가을에는 잠자리 때가 같이 가자며 우리를 졸졸 뒤따라오는 것 같다. 초록색이었던 나무들과 들판이 울긋불긋하게, 초록들 판은 노란색 황금 들녘으로 바뀐다. 가끔 들녘을 보면 밀짚모자를 쓰고 두 팔 벌려 새를 쫓는 허수아비와 농부들이 삼삼오오 모여 추수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평소에는 앉아 장난만 치던 동생도 “우와~”하면서 보게 만드는 신기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아빠가 태어나신 겨울에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산과 땅, 나무들이 우리를 맞이한다. 가끔 너무 천천히 운전하는 아빠에게 “조금만 빨리 가요.”라고 말하면 아빠는 웃으면서 “정연이 눈 구경 많이 하라고 가는 거야.”라고 하시곤 한다. 너무 추워 따뜻한 털 잠바를 입고 가는데 신기하게 창원에 도착하면 털 잠바가 가끔 덥게 느껴질 때가 있다. 루돌프 사슴 코처럼 빨갛던 내 코와 볼은 언제 그랬냐는 듯 따듯해진다. 하얀 눈이 산과 들을 이불처럼 잘 덮어주어서 따뜻해진 걸까? 엄마께서 가끔 “정연이가 엄마 뱃속 열 달 동안 있을 때, 창원에서 대저까지, 대전에서 창원까지 기차 타고 다니면서 엄마가 창밖에 참 예쁘다고 정연이에게 얘기해주곤 했는데, 기억나?”라며 웃으시며 이야기하신다. “엄마, 제가 어떻게 기억해요~” 엄마는 나에게 내가 기억나지 않을 때부터 우리나라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쳐주신 것 같다. 그래서인지 가끔 산 중턱이 깎여 험뎠고 있는 나무가 베인 듯한 모습을 볼 때면, 상처가 난 나의 피부를 보는 것처럼 아프고 따가운 느낌이 든다. 산에 아픔을 주고 있는 것 같아 미안하다.

자연이 엄마라면 우리는 아기인 것 같다. 자연은 우리가 이렇게 상처를 주어도 늘 우리를 품어주니까. 외갓집은 창원이라는 먼 도시에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다. 대전에서 창원까지 가는 모든 그 길이 나의 외갓집이다. 어릴 적 내가 외갓집을 오고 갈 때마다 보았던 산과 들, 땅, 물, 공기의 향긋한 향기가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나중에 커서 나의 아이에게 엄마의 외갓집 가는 길을 이야기해 줄 그날이 올 때까지 지금 모습 그대로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국어	7. 기행문을 써요 기행문의 특성 파악하기	5학년 6반 이름 (            )
----	----------------------------	-----------------------------

1. 각 글에 알맞은 특징을 연결해 봅시다.

4318번 버스를 타고 가는 곳  
우리 고장은 경기도 남양주입니다!  
일요일 아침 백두산 다녀오기  
엄마의 놀이터, 무학시장  
외갓집 가는 길

- 다니다면서 보고 느끼고 겪은 것을 작성한 글
- 글쓴이가 살고 있거나 살았던 지역에 대한 글
- 먼 곳으로 여행을 다녀온 뒤 작성한 글
- 여행 과정을 상상하여 쓴 글
- 글쓴이의 의견이나 주장이 드러난 글
- 자연에 대한 묘사가 자세한 글
- 여정(여행의 과정)이 잘 드러난 글
- 장소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있는 글

2. 기행문의 특성을 정리해 봅시다.

기행문은 여행한 **경험**을 쓴 글이에요. 그래서 여행 과정인 **여정**이 가장 큰 줄기를 이루고, 여행하며 보고 들은 **경과**와 이를 통해 느낀 점이나 생각인 **견문**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특히, 자신이 느끼고 생각한 감상을 잘 써야 좋은 기행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정	여행 과정이나 일정으로 여행한 날짜와 시간, 여행한 장소 등을 차례로 씁니다.
견문	견(見)은 ‘보다’, 문(聞)은 ‘듣다’라는 뜻이에요. 여행지에서 한 일이나 보고 들은 것을 말합니다.
감상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생각으로, 여행의 경험을 통해 느끼고 생각한 것을 말합니다.

3. 아래 기행문에서 여정을 ○, 견문을 (    ), 감상을 \_\_\_\_으로 표시해봅시다.

**마음이 맑아지는 낙산사**

8월 2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용수철처럼 튕기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엄마 아빠와 낙산사에 가기로 한 날이기 때문이다. 강원도 양양에 있는 낙산사는 영동에서 여덟 번째로 경치가 좋은 곳이라고 아빠가 말해 주었다. 하늘을 보니 오늘따라 유난히 구름 한 점 없이 맑아 보였다. “야! 날씨도 참 좋다.”

옷을 입고, 시계를 보니 6시 30분. 출발 시각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침을 먹고 엄마 아빠와 나는 터미널로 향했다. 속초행 버스에 우리가 오르자 기다렸다는 듯 버스가 출발했다. 차창으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고, 가로수는 나에게 손을 흔들며 스쳐 지나갔다.

버스는 어느덧 어항으로 유명한 주문진을 지나, 낙산사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11시 20분, 드디어 낙산사에 도착했다. 일주문을 지나 낙산사로 올라가는 계단 옆으로 갖가지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고, 법당에서는 목탁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또, 해안 언덕에 있는 해수관음상은 아빠보다 10배나 키가 크다고 하는데, 계단 아래 있는 법당의 작은 창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했다.

엄마가 잠시 쉬는 사이 아빠와 나는 옛날 의상 스님이 수행했다던 의상대에 올랐다. 푸른 바다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 이곳에서 왜 의상 스님이 수행하셨는지 알 것 같았다.

이번 가족 여행은 도시에 사는 나에게 눈이 맑아지고, 마음이 넓어지는 행복한 여행으로 기억될 것 같다.

4. 1~5쪽의 글을 다시 읽고 감상이 잘 드러난 부분에 \_\_\_\_으로 표시해봅시다.